

채식주의...다문화...광주에서 소수로 살아간다는 것은

'채식' 아닌 '인식' 때문에 힘들다

기후위기 때문에 시작했지만 불편한 시선 친구와 멀어지고 외식하기도 쉽지 않아 교육기관 채식주의 정책 부재 아쉬워요

최근 친환경과 가치소비와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채식주의 실천 움직임이 늘고 있지만 광주지역에서는 여전히 채식주의를 실천하기는 힘들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3 광주 비건 페스티벌"이 열린 지난 21일 광주청소년상담디자인센터에서 만난 광주지역 채식주의자들은 "음식 만큼 힘든 건 '인식'이라고 입을 모았다. 비건(Vegan)은 육류는 물론 우유와 달걀도 먹지 않는 채식이다.

광주에서 1년 넘게 채식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이랑(여·21)씨는 "비건이라고 하면 동물은 불쌍하고 식물은 안불쌍하냐는 시비가 먼저 붙는다"며 "음식에 제한이 생기다보니 친구들과 밖에서 밥 한끼 먹는 게 어려워지면서 친구들과 멀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먹는 즐거움 말고도 마시는 즐거움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관계 형성이 가능하다"면서 "인식이 변한다면 조금은 더 편하게, 보다 많은 사람이 비건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또 광주·전남에서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음식점들도 점차 줄고 있는 실정이라 채식을 실천하기가 여간 힘들다는 토로도 나왔다.

10년전 건강이 악화되자 채식을 시작한 김경심(여·67)씨도 "채식주의자들의 단계를 만든 '비건 지도'를 토대로 음식점을 막상 찾아가보면 사라졌거나 비건 식당이 아닌 경우가 많다"며 "비건 메뉴를 매번 요청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 밖에서 밥 한끼 사먹는 것도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비건 식당은 대부분 뷔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코로나 19 당시 감염 우려로 뷔페 형식의 식당이 문을 닫으면서 자연스레 비건 식당도 사라지게 됐다는 것이다.

교육기관에서 소수를 차지하고 있는 채식주의자를 위한 정책의 부재도 안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을 위해 가족들과 자연스레 채식 중심 식단을 실천하고 있다는 임사랑(여·45)씨와 고은찬(14)군, 고은솔(10)양 가족은 "우리 가족은 완전한 비건은 아니지만 메탄가스를 발생시키는 소와 돼지 등 큰 동물은 먹지 않고 우유도 비건 우유를 찾아먹고 있다"면서 "하지만 학교 급식에서 '비건유'(동물성 제품이 없는 유제품)를 선택하지 못하고 일반 우유를 선택해야 하거나 공공급식에서 채식급식을 선택하지 못할 때는 어렵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 지역 채식주의자들이 지난 21일 광주시 동구 광주청소년상담디자인센터에서 개최된 '2023 광주 비건페스티벌'에 참석했다.

'언어 장벽'에 '정보 장벽' 높기만

한글 표지판 못 읽어 1시간 넘게 헤매고 생계·의료비·일자리 지원 있는 줄도 몰라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 청해야

국제결혼으로 가정을 이룬 광주·전남의 '다문화가족'이 초기 정착과정에서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2004년 결혼하면서 남편을 따라 광주에 정착한 베트남 출신 황미나(여·38)씨는 광주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언어를 꼽았다.

황씨는 "처음 광주에 왔을 때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가도 총별 안내표지판을 못 읽어서 1시간 넘게 길을 헤매는 적도 있다"고 회상했다. 언어차이에서 오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다.

광주, 전남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생계·의료비·의료비 명목의 100만원 이내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일자리 지원, 자녀를 위한 방문교육 서비스 등의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어가 서툴러 정보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족들은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해도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언어능력이 부족하다보니 누군가 알려주기 전에는 알 수 없다고 한다.

중국어에서 시집은 김경옥(여·57)씨도 "초기정착 당시 극심한 생활고로 2년 여 동안 아들과 단둘이 단칸방에서 생활하면서 몇 년간 복지혜택을 알지 못해 단순 노동을 해오며 겨우 생활을 이어왔다"고 말했다.

김씨는 일하던 꽃집 사장으로부터 광주시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복지제도를 통해 생계 지원금 뿐만 아니라 일자리까지 소개받을 수 있었다.

김씨는 "말도 잘 못하고 먹고 살기 막막하다보니 놓쳤던 것들이 많았던 것 같다"며 "지금도 다른 다문화가족들을 자주 만난다. 어려운 점이 있으면 나처럼 혼자 고민하다가 고생하지 말고 주변에 물어보라고 당부한다"고 웃어보였다.

한편 광주시 북구는 '북구에서 하루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족들이 광주민속박물관, 예술여행센터, 호수생태원 등지를 돌아다니며 광주의 역사를 보고, 직접 전통음식을 만드는 등의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9일까지 4회 열리고, 회당 25명 내외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다.

/글·사진=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북구에서 하루여행'에 참여한 광주의 다문화가족들이 지난 21일 오전 광주역사민속박물관에서 관광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5·18 단체 향한 오월어머니상 수상자의 일침

김순홍 한국사회조사연구소장 "5·18 당사자, 일선서 물러나야" "지역·국가·세대 뛰어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필요" 강조

제17회 오월어머니상 수상자가 수상 소감에서 이례적으로 5·18민주화운동 관계자들의 '당사자 주'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올해 오월어머니상 단체상을 수상한 김순홍(사)한국사회조사연구소 소장은 지난 20일 광주시 남구 양림동 오월어머니집에서 열린 제17회 오월어머니상 시상식에서 "5·18 당사자들은 일선에서 물러나야 하며, 전수로 뛰지 말고 심판으로 뛰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월 19일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지역사회의 반대에도

"당사자 주"를 앞세워 5·18의 가해자 중 하나로 지목되는 (사)특전사동지회와 '용서와 화해의 공동선언식'을 강행한 데 대한 지적으로 풀이된다.

당시 5·18부상자회·공로자회는 가해자 측이 사과조차 하지 않았는데 화해 행사를 강행한 이유로 "5·18 피해자와 가해자,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결할 일"이라는 논리를 폈다.

김 소장은 43년 동안의 5·18 관련 단체들의 활동과 성과 등을 돌아보고, 광주를 넘어 타 지역과 타 국가, 미래 세대가 5·18 관련 연구 및 진상규명

을 이어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5·18정신 계승 등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요즘은 그냥 의례적인 축제만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많은 사람들이 지금 5·18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한다. 지금은 5·18을 한번 되짚어 봐야 할 때"라고도 지적했다.

한편 오월어머니상은 (사)오월어머니집이 5·18 당시 또는 이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오월정신 계승에 공로가 인정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개인상은 '오월어머니의 노래' 총감독 고(故) 김동찬씨와 서영숙 한국이주여성성유권자연맹 광주지부장이 받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 지역 한방병원 부당이득 환수 '전국 최다'

2018년~올 6월 94건 달해

최근 5년간 광주 지역 한방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비례)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8월 기준 전국 한방병원 555곳 가운데 광주지역 한방병원은 88곳으로 경기(143곳)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광주는 인구 10만명 당 한방병원이 6.3곳으로 경기도(1.1곳)에 비해 밀집도가 5배를 웃돌았다.

광주는 한방병원 부당이득 환수 건수(2018년~2023년 6월까지)로도 94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경기도 67건, 서울 55건, 전남 30건, 인천 25건이 뒤를 이었다.

강은미 의원은 "한방병원 부당이득 환수 자료를 보면 '요양병원, 한방병원의 폐이백' 문제와 함께 요양병원, 한방병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부당행위가 광주뿐 아니라 전국적 현상일 수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에서 조사 인력을 늘려 이들 병원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도 광주광역시 복지부 현지조사 관련 환수 결정 현황'에서 A 한방병원은 '산정기준 위반청구'로 6759건, B한방병원은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로 404건이 환수됐다.

C한방병원은 '실시하지 않은 진료행위를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 '미근무 비상근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수가고시 행위료 부당정수', '무자격자가 실시한 진료비 청구', '산정기준 위반행위' 등으로 총 5922건이 환수됐다. /장윤영 기자 zzang@

함께하는 100년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외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빛고을로지점 062)528-2640~2
배틀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터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